

『늘 생각하는 아름다운 신앙』

【오늘의 메시지】

찬송하기

찬송가 254장
찬양은 가정에서 자유롭게 경해도 좋습니다.

우리는 너무 바쁜 생활 속에 살면서 깊은 생각 없이 귀중한 하루하루를 낭비하는 때가 많이 있다. 우리는 생각하며 사는 성도가 되어야 한다. 내가 다 옳은 줄 알았는데 깊이 생각해보니 내가 옳지 않았고, 또 내가 제일 잘난 줄 알았는데 깊이 생각해 보니까 나보다 잘난 사람이 너무도 많음을 깨닫게 되는 것이다.

기도하기

가족 중의 한 사람이 기도를 합니다.

바울은 먼저 23절에서 '덕을 세우는 일'인가 생각하라고 했다. 고린도 교회가 받는 책망의 내용도 교회 안에서 덕을 세우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어서 지금 바울에게 책망을 받는 것이다. 덕은 은혜를 담은 그릇이며, 은혜는 축복을 담은 그릇이다. 덕스럽지 못한 말이나 행동에 은혜가 있을 리가 없다. 그러므로 기도하면서 깊이 생각하며 사는 성도가 되어야 하겠다.

성경읽기

가족이 함께 돌아가면서 읽습니다.

24절에서 다른 이에게 유익한가 생각하라고 했다.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자기의 유익을 챙기기에 남의 유익 같은 것은 생각할 필요도 없는 세상에서 살고 있다. 진정한 예수님의 사랑은 "무례히 행치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는 것"이다. 진정한 그리스도의 사랑은 자기의 유익보다 형제의 유익을, 교회의 유익을 먼저 생각하는 것이다. 본문에서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지금 내가 하고 있는 행동이 다른 사람들에게 가나 교회에 유익한 것인가를 생각해 보라고 한다.

오늘의 메시지

가족들이 함께 나누어 읽습니다.

본문 나누기

각자 묵상한 내용을 나눕니다.

마지막으로 본문 31절에서 모든 것이 하나님께 영광된 일인가 생각하라는 것이다. 그래서 바울은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즉 하나님 뜻에 맞추라는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아무렇게나 사는 성도가 되기보다는 이것이 덕을 세우는 일인지, 이것이 하나님께 영광된 일인지를 늘 생각하는 아름다운 신앙의 삶이 되어야 할 것이다.

함께 기도하기

한 주간 함께 기도할 기도제목을 정하고 기도합니다.

주기도문

주님이 가르쳐주신 기도로 예배를 마칩니다.

【본문 나누기】

가족 구성원이 오늘의 본문 중에서 느낀 것을 자유롭게 나누도록 합니다.

『칭찬이 있으리라』

【오늘의 메시지】

찬송하기

찬송가 333장
찬양은 가정에서 자유롭게 경해도 좋습니다.

나폴레옹 황제가 이끄는 프랑스군이 러시아에 진군하여 러시아 장교 한 사람을 생포했다. 그를 프랑스군으로 전향하도록 회유했으나 거절하자 프랑스 사령관은 뜨거운 인두로 장교의 팔에 N자를 새겼다. 그러자 러시아 장교는 옆에 있던 프랑스 병사의 칼을 빼앗아 N자가 새겨진 자신의 팔을 잘라 버리고 "나는 러시아군 이외에 다른 흔적을 가질 수가 없소"라고 말했다. 이것이 충성이다. 적당히 타협해 세상 것에 흔들리지 말고 늘 충성을 다해야 한다.

기도하기

가족 중의 한 사람이 기도를 합니다.

성경읽기

가족이 함께 돌아가면서 읽습니다.

오늘의 메시지

가족들이 함께 나누어 읽습니다.

본문 나누기

각자 묵상한 내용을 나눕니다.

함께 기도하기

한 주간 함께 기도할 기도제목을 정하고 기도합니다.

주기도문

주님이 가르쳐주신 기도로 예배를 마칩니다.

첫째, 하나님의 일꾼으로 비밀을 맡은 자로 충성해야 한다. 바울은 자신을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라고 한다. 일꾼이란 헬라어로 밑에서 노를 젓는 사람이다. 노를 젓는 사람들은 선장의 지시를 따라 노를 젓는다. 모든 방향을 다 주인에게 맡기고 순종하는 것이다. 그것이 진정한 충성이다.

둘째, 맡은 사람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다. 어떤 사람은 교회가 마음에 안 들어 충성하지 못하겠다고 한다. 웰스는 "완전한 교회를 찾지 마라. 찾을 수 없을 뿐더러 찾아낸다 해도 당신이 그 교회 교인 될 자격이 없다"고 말한다. 교회는 온전한 곳이 아니다. 내가 좋은 교인이 되면 그 교회는 좋은 교회가 된다.

셋째, 충성할 때 충성할 만한 능력을 주신다. 주님은 우리를 부르셔서 사명을 주고 그냥 내보내지 않으신다. 그것을 감당할 만한 능력을 주신다. '충성하다'는 헬라어로 '피스토스'라는 말로 '믿음이 가득하다'는 뜻이다. 주님은 우리를 충성되이 여기셔서 믿음이 없는 것을 믿음이 있다 하시고 충성하게 하신다. 그때마다 칭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라.

【본문 나누기】

가족 구성원이 오늘의 본문 중에서 느낀 것을 자유롭게 나누도록 합니다.

『영적 훈련의 문을 연다』

【오늘의 메시지】

찬송하기

찬송가 453장
찬양은 가정에서 자유롭게 경해도 좋습니다.

기도하기

가족 중의 한 사람이 기도를 합니다.

성경읽기

가족이 함께 돌아가면서 읽습니다.

오늘의 메시지

가족들이 함께 나누어 읽습니다.

본문 나누기

각자 묵상한 내용을 나눕니다.

함께 기도하기

한 주간 함께 기도할 기도제목을 정하고 기도합니다.

주기도문

주님이 가르쳐주신 기도로 예배를 마칩니다.

도널드 코건은 "나는 한 나그네로서의 영원을 향한 길을 걸어가고 있다. 나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았으나 그 형상에 손상을 입었으므로 어떻게 목상해야 하는지. 어떻게 예배해야 하는지. 어떻게 생각해야 하는지를 배워야한다"고 말했다. 이런 영적인 훈련은 우리들로 하여금 피상적인 삶을 떠나 깊이 있는 삶을 살도록 요청한다. 존 울만은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했다. "당신은 깊이 있는 삶을 살아야 한다. 그렇게 할 때 당신은 사람들의 영을 이해할 수 있고, 느낄 수 있다."

흔히 훈련하면 영적인 거장들을 떠올리며 어렵다고 판단하거나 자신의 시간을 기도와 묵상에 전적으로 바치는 사람들을 위한 것이라고 여겨 우리는 그와 같은 훈련에 도달할 수 없다는 생각도 하는 경우가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영적인 훈련이 보통 사람들에게 이루어지기를 원하신다.

우선 요청되는 것은 하나님을 갈망하는 것이다. 오늘 말씀에서 시편 기자는 다음과 같이 고백한다.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니이다.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생존하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아담 이후 타락한 인간은 하나님으로 채워야 할 자리에 다른 우상들로 채워 보지만 그 어디에도 만족이 없기에 끊임없이 새로운 무엇을 갈망하고 있지만 그곳은 오직 하나님으로만 온전히 채워질 수 있는 것이다.

우리는 영적인 훈련을 알면 아는 것으로 그칠 때가 많다. 영적인 훈련 방법을 아는 것이 훈련을 실행하는 것은 아니다. 영적인 훈련으로 나아가는 첫 걸음은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를 맺고 친밀하게 교제하는 것 뿐이다.

【본문 나누기】

가족 구성원이 오늘의 본문 중에서 느낀 것을 자유롭게 나누도록 합니다.

『사랑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오늘의 메시지】

찬송하기
찬송가 299장
찬양은 가정에서 자유롭게 정해도 좋습니다.

사랑을 모토로 세운 고아원, 양로원, 사회복지 기관이 차츰 영리를 추구하는 모습으로 변질되어가는 것을 볼 때 이 시대에 과연 사랑이 있기는 한 걸까 하는 의심이 든다. 사도 요한은 그의 서신에서 형제 사랑의 실천을 거듭 강조한다. 예수님도 제자들을 향해 서로 사랑할 것을 강조하셨다. 우리가 참으로 그리스도인으로 살고 있는가에 대한 궁극적 시금석은 바로 가까운 형제만 사랑 하는 한계를 넘어 원수까지도 사랑하는 삶을 살고 있는 것이다.

기도하기
가족 중의 한 사람이 이 기도를 합니다.

성경읽기
가족이 함께 돌아가면서 읽습니다.

서로 사랑하는 것, 그것이 바로 거룩이다. 그 사랑은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 온전한 관계를 맺을 때 드러난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는 사랑을 알 수 없기 때문이다. 하나님은 본질적으로 사랑이시다. 진정한 사랑과 사랑에 대한 앎은 하나님께 있다. 따라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는 사랑을 알지 못하는 자며 사랑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다.

오늘의 메시지
가족들이 함께 나누어 읽습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해야 할 이유는 그것이 거듭남에 대한 증거이기 때문이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기 때문이다. 하나님으로부터 난 자들만이 이같이 사랑할 수 있다. 세상 사람들에게 '서로 사랑하라'고 요청해 봐야 아무 소용이 없다. 그들은 그렇게 할 수 없다.

본문 나누기
각자 묵상한 내용을 나눕니다.

함께 기도하기
한 주간 함께 기도할 기도제목을 정하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난 자들은 서로 사랑한다. 그러므로 내 속에 이런 생명력 있는 사랑을 미약하게나마 드러내지 않는다면 진짜 그리스도인이 아니다. 사랑하지 않고 불친절하며, 항상 비판적이고 쑥덕거리며, 험담하고 다른 그리스도인을 비방하는 말을 들을 때 기뻐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았음을 스스로 인정하는 셈이다.

주기도문
주님께서 가르쳐주시는 기도예배를 마칩니다.

【본문 나누기】
가족 구성원이 오늘의 본문 중에서 느낀 것을 자유롭게 나누도록 합니다.

『뜻을 정하는 신앙』

【오늘의 메시지】

찬송하기
찬송가 545장
찬양은 가정에서 자유롭게 정해도 좋습니다.

오늘 우리는 한 사람을 통해 그 어떤 상황에서도 자신의 안위를 염려하며 힘에 굴복하지 않고 하나님을 향한 신앙만을 고수하는 사람을 생각하고자 한다.

기도하기
가족 중의 한 사람이 이 기도를 합니다.

사람들은 자기 나름대로의 생각과 뜻을 가지고 세상을 살아간다. 그리고 자신의 생각과 뜻을 굽히기 싫어한다. 그러나 그 어떤 사람도 자기 생각과 뜻대로 살 수는 없다. 그럴 때 사람들은 자기에게 유리한 것을 얻고자 적당하게 타협한다. 다니엘은 바벨론에 포로로 끌려와서 모든 주권을 빼앗기고 왕이 시키는 대로 해야 하는 처지였다. 그런데 8절을 보면 다니엘은 뜻을 정했다고 한다. 다니엘의 목숨은 전적으로 바벨론 왕의 손에 달려 있다. 이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정하신 뜻 외에 다른 뜻에는 순종하지도 않을 것이고 굴복하지도 않겠다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 그것만을 내 인생 길로 정하겠다는 결단이다. 그러면 다니엘은 어떤 뜻을 정했는가?

성경읽기
가족이 함께 돌아가면서 읽습니다.

오늘의 메시지
가족들이 함께 나누어 읽습니다.

바벨론 왕의 상에서 나오는 포도주와 진미를 거절했다. 다니엘은 이것을 거부하기 위한 뜻을 세운 것이다. 왕의 명령을 거부한다는 것은 목숨 잃을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다니엘이 왕의 음식에 자기를 더럽히지 않겠다고 한 것은 왕이 자기를 살리고 보기에 좋은 사람으로 키웠다는 말이 자기를 더럽히는 것이 되기 때문이다. 다니엘은 자기 몸은 바벨론에 있으나 자기를 주장하시고 붙드시는 분은 하나님 뿐이라고 믿는 신앙을 가졌기에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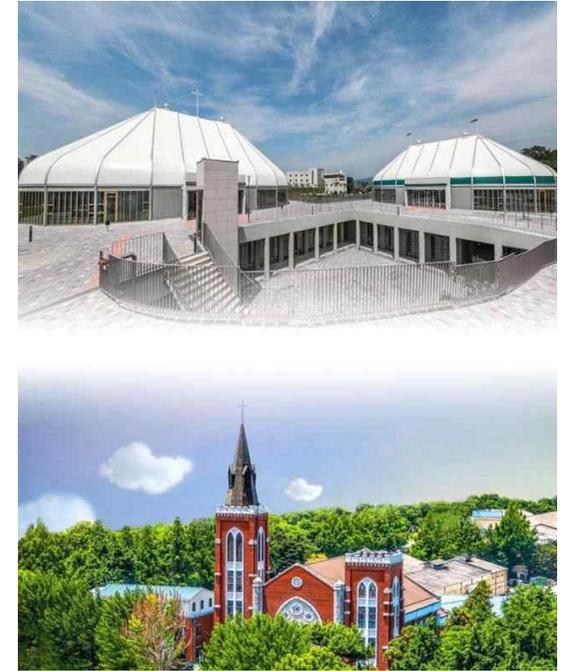
본문 나누기
각자 묵상한 내용을 나눕니다.

함께 기도하기
한 주간 함께 기도할 기도제목을 정하고 기도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고 택함 받은 성도라면 세상에서 적당히 타협하면서 살아갈 수 없다. 오직 뜻을 정하고 살아갈 뿐이다. 끝까지 하나님만 신뢰하면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열심히 세상을 사는 것이 뜻을 정한 성도이다. 그것이 하나님을 주인으로 삼는 인생이다.

주기도문
주님께서 가르쳐주시는 기도예배를 마칩니다.

【본문 나누기】
가족 구성원이 오늘의 본문 중에서 느낀 것을 자유롭게 나누도록 합니다.



대한예수교 장로회 **서림교회**

위임목사 : 최 용 희

임동 예배당 : 광주광역시 북구 경양로 7 T.525-5252 F.525-5260
수완 예배당 : 광주광역시 광산구 상완길 303 T.525-0303 F.525-0301